



인권가이드라인

인권가이드라인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CONTENTS

00

서문

01

과방

02

새터

03

동아리
개강총회

04

엘리베이터

05

지하철

06

교실

07

술자리

08

오티

09

도서관

10

백양누리
주차장&화장실

00

마무리

00

서문

안녕하세요.

인권가이드라인을 만든 총여학생회입니다. 서문에서는 총여학생회가 인권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된 배경과 인권가이드라인을 읽는 가이드를 제시해보려 합니다.

연세 공동체의 인권 감수성은 어디쯤 위치해 있을까요? 흔히 '배움의 장' 이라고 불리는 연세대학교에 재학 중인 우리들은 지성이 부족해서 인권감수성이 부족한 것일까요? 편집진은 감히 "그렇다" 고 대답하겠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지성이라는 낱말을 찾아보면, 지성이란

- 1) 지각된 것을 정리하고 통일하여, 이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식을 낳게 하는 정신 작용. 넓은 뜻으로는 지각이나 직관(直觀), 오성(情性) 따위의 지적 능력을 통틀어 이른다.
- 2) <심리> 새로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명목적이거나 본능적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적인 사고에 근거하여 그 상황에 적응하고 과제를 해결하는 성질.

입니다.

그렇다면 인권가이드라인은 왜 필요할까요? 차별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에서 나옵니다. 이는 곧 그 당연함에서 벗어나는 이에게 권력으로 작동하고 당연함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규제로 작용합니다. 차별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많은 부분은 실제로 당연하지 않습니다.

"모르면 배워라" 식의 태도는 어떤 상황에서는 지나치게 무책임하거나 오히려 엘리트주의적일 수 있지만, 엘리트주의를 경계하기 위해서는 반지성주의를 타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생이라고 해서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거나, 단편적인 정보를 유기적으로 엮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우리는 충분히 사유하고 성찰하고 있나요? 공감은 상상력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상상력은 지성으로부터 옵니다.

혐오의 피라미드





인권가이드라인 편집진이 썩썩, 오렌지, 한라봉, 밀감 등 과일 이름을 사용한 까닭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인권가이드라인을 제작하기 시작한 제 28대 총여학생회 around를 상징하는 색깔이 주황색인 까닭이 있습니다. “불편한 대나무숲” 등 총여학생회의 앞선 사업에서 주황색인 과일의 이름을 썼던 것으로부터 착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일 이름만으로는 젠더를 추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얼마나 성별이분법과 이성애중심주의에 매몰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젠더뿐 아니라 인종 및 국적 문제도 고려하였는데요, 과일의 원산지는 각각 달라도, 품종을 한국으로 들여와 재배하거나 외국에서 재배된 과일이 한국으로 수입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 밖에도 인권가이드라인에 등장하는 각각의 과일들을 교차하는 다양한 맥락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한 사례에서 썩썩이 사회적 소수자 혹은 권력 관계로부터 발생한 폭력의 피해자였다면 다음 사례에서는 썩썩이 폭력의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각각의 과일들에 일관적이지 않은 위치를 부여한 까닭은 첫째, 소수자성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유동적인 위치라는 점, 둘째, 폭력은 특별히 나쁜 악마적 개인이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기 그지없는 사람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피드백을 비롯한 많은 도움을 주신 단체들(연세대학교 중앙 장애인
권동아리 게르니카, 연세대학교 국제처, 고려대학교 채식주의자-페
미니스트 네트워크 뿌리:침, 연세대학교 채식모임
베지밀, 연세대학교 중앙 성소수자동아리 컴투게더)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01

과방

채식인인 켜짱은 밥을 못 먹었다. 학식을 먹으러 갔는데 켜짱이 먹을 수 있는 식사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1 그래서 과일을 사들고 과방으로 갔다.

“안녕” 과방에 있었던 친구들이 인사한다. 친구들은 밥을 다 먹고 와서 과자를 먹고 있었다. 켜짱은 과방에 앉아 과일컵을 열었다. “켄짱이 과일 사왔네? 밥 안 먹었어?” 과자를 먹던 오렌지가 물어봤다. “응, 나 채식하거든.” 켜짱은 채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학식에 자신이 먹을 수 있는 식사가 없어서 속상하다고 이야기했다.

한라봉은 “오늘따라 되게 예민하네. 너 그날이야?”*2 라고 말했다. 오렌지는 한라봉에게 “야 너 그러다 논지당 잡혀가~”*3 하고 말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쥘쥘에게 “그거 갖고 어떻게 버터~ 이 과자도 좀 먹어~”라며 오렌지가 과자를 권했지만 그 과자는 쥘쥘이 고기분말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먹지 않는 과자였다.

“그거 고기분말 때문에 안 먹을라고” 쥘쥘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오렌지는 “고기분말 때문에 안 먹는다고? 동물성 지방도 먹어야지!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힘이 없고 그래서 이렇게 조용하잖아.”*4라고 했다.

한라봉은 “야야 너 저번에는 이 과자 먹었잖아~ 그리고 어차피 다른 과자들도 버터 같은 거 다 들어가는데 뭐 차이냐”라고 했다.*5 쥘쥘은 설명을 하려는 마음이 들다가도 하루에도 몇 번씩 겪는 일이고 이미 기분도 안 좋아져 그냥 말을 하지 않기로 했다.

수업을 마친 밀감이 과방에 들어왔다. 쥘쥘과 친한 밀감이는 친구들과 인사하고 쥘쥘과 이야기를 하며 옆에 앉았다. 오렌지는 밀감과 쥘쥘에게 “야 니넨 언제 사귀냐? 맨날 같이 다니고 옆에 앉고.”*6 쥘쥘과 밀감이는 그런 거 아니고 친구 사이라고 했다.

한라봉은 “밀감이는 여자친구 언제 사귀게?”하고 물어봤고 밀감이는 바빠서 별로 생각이 없다고 했다. 그때 오렌지가 “야 너 게이 아냐?”*7 라고 말했다.

쥘쥘은, ‘밀감이가 게이든 아니든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되지’ 라고 생각했다. 밀감이가 “방금 그 말은 무례한 거 같은데. 내가 어딜 봐서 게이냐?”*8 라고 했지만 오렌지는 “어차피 주변에 있지도 않은데 뭐 어떠냐”라며 되려 기분 나빠 했다.*9

*1 생활협동조합에서 채식주의를 위한 식단을 내놓고 있는 추세지만, 연세대학교에서 채식 식단을 찾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2018년 2월 기준)

*2 월경과 예민함을 치환하는 행위는 월경을 할 때 실제로 겪는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가리는 것입니다. 월경을 '여성적인 것' 만으로 치환하고,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성별과 무관하게 덧씌우는 행위를 지양합니다.

*3 학내에서 논지당은 성평등센터의 대유적 표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평등센터를 희화화하거나, 이를 처벌 기관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평등센터는 학내 성폭력 사건을 다루고 성평등 문화가 형성되도록 교육하는 학내 기구입니다.

*4 채식주의에게 채식 외의 식단을 강요하지 맙시다. 채식주의는 원하는 식단을 고를 자유가 있으며, 타인에 의해 침해될 수 없습니다. '채식인의 건강이 걱정되어서' 라는 이유로 식단에 대한 본인의 간섭을 합리화하지 맙시다.

비건 (Vegan)						
락토 채식주의 (Lacto vegetarian)						
오보 채식주의 (Ovo vegetarian)						
락토 오보 채식주의 (Lacto-ovo vegetarian)						
페스코 채식주의 (Pesco-vegetarian)						
폴로 채식주의 (Pollo-vegetarian)						
플렉시테리언 (Flexitarian)						

* 플렉시테리언은 채식을 하지만 때때로 육식을 한다.

*5 채식주의에는 다양한 범주가 있습니다. (자료. <https://goo.gl/ssSESk>) 채식주의는 스스로 정하기에 따라 정체성이 될 수 있지만 언제나 고정된 것이 아니며 모르고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식주의에게 완벽함을 강요하지 맙시다.

*6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무조건 연애, 혹은 사랑이라는 하나의 관점만으로 바라보려는 것은 이성애중심주의적, 그리고 유성애 중심주의적 사고관에서 비롯된 발언입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다양한 정서적 유대 관계가 가능합니다.

*7 & 8 이성애/유성애 중심적인 발언입니다. '게이'라는 단어에 비하의 의미를 담으려고 하는 의도, 실제로 비하하는 단어로 쓰이는 현상에 의문을 제기해봅시다. 비연애자를 비하/희화화하는 것 또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입니다.

*9 주변에 성소수자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태도는 당사자의 정체성을 밝히게 어렵게 만들고, 밝히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상처를 줍니다.



02

새터

새내기 배움터에 간 한라봉은 동기들과 조를 짜서 촌극을 하게 되었다. 오티 때 며칠 보기는 했지만 다들 대면대면한 사이였는데, 선배들은 우리 과의 기를 살리기 위해 꼭 우리가 가장 재미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한라봉은 어찌할 줄 몰라 오티 때 만났던 선배 밀감이에게 어떻게 해야 하냐고 연락을 했는데, 밀감이는 자신이 새내기였을 때 미팅에 폭탄이 나오는 설정을 했는데 가장 재미있었다고 했다.*1 그런 공연을 하기는 싫었지만 동기들도 선배한테 온 연락을 보여달라고 했고 한라봉은 “이거는 근데 별로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다른 재미있는 생각 있어?” 라고 하는 동기의 말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결국 ‘여자동기 세 명과 여장한 남자동기 한 명이 미팅에 나가는 상황’을 설정했다.

남자동기 역할을 맡은 켄짱이는 “어 마침 내 립밤 좀 빨간색인데”라고 했고 다른 동기들은 “뭘 남자에게 그런 걸 바르냐~”라고 웃으며 그 립밤을 바르도록 했다.*2

연극이 끝나고 술자리를 갖게 됐다. 동그랗게 둘러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데 켜장은 옆에서 술과 음료수만 먹고 있던 오렌지가 신경쓰였다.

켄장은 오렌지에게 “왜 안주 안 먹어? 안주 없이 마시면 속에 안 좋아”라고 말했고 오렌지는 켜장에게만 조용히 자신이 채식주의인데 먹을 수 있는 안주가 없다고 말했다.*3

그때 오렌지의 말을 옆에서 들은 한라봉이 “너 아까 밥도 편식하더라 채식주의이었구나~”라면서 큰 소리로 이야기했다.*4 그러자 갑자기 모두들 오렌지에게 질문을 한마디씩 했다. “헐 그럼 오렌지는 안주 못 먹어? 불쌍하다”*5, “채식하는데 술은 먹어?”*6, “우리 종이컵 쓰는 것도 다 나무인데 식물은 안 불쌍해? 결국 그거 다 부질없잖아. 도덕적 우월감일 뿐인 거지.”*7 그런 질문들을 받으며 당황하는 오렌지를 보며 켄장은 괜히 자신이 상황을 이렇게 만든 것 같아 미안해졌다.

켄장은 취한 것 같으며 A에게 산책 하러 나가자고 했고 둘은 함께 술자리를 나와 이야기했다. 켄장은 “나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미안해”라고 했고 오렌지는 괜찮다며 켄장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다시 술자리로 돌아가 놀다가 누군가 한 동기에게 “야 X신 같아~”라고 했고 그 말을 들은 동기는 말을 더듬는 흉내를 냈다.*8 장애를 가진 가족이 있는 켄장은 이 상황이 불편하다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한라봉이 “와 너 그런 가족이 있었어? 켄장이 성인이네~!”하면서 켄장에게 기도하는 척을 했다.*9 옆에 있던 밀감이는 “장애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 아냐?”라고 했다.*10 켄장은 잠시 후 술자리를 빠져 나와 방으로 갔다.

•1 외모지상주의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미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을 조롱하는 것이 윤리적일까요? 외모로 타인을 비하하고 희화화하는 행위를 지양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대내외적으로 '바람직한' 외모를 규정짓는 사회적 압박과 억압이 더욱 무겁기 때문에, 여성을 소재로 할 경우 이러한 억압을 더 강하게 재생산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2 남성이 여성성을 가질 수 없는 것일까요? 특정 행위를 성별과 관련된 특징이라고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구성된, 남성성/여성성이 공존할 수 없는 특징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여성 '화장'과 '여성됨'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화장 뿐 아니라 모든 행위를 '여성됨' 또는 '남성됨'과 치환하여 사고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개인에게 특정 행위 또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강요하는 것은 개인에게 가해지는 억압인 동시에 성차별입니다.

•3 학내 행사 자리에서 대표자들은 채식인을 위한 식단을 미리 준비해두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동체에 채식하는 구성원이 존재하는지 미리 알아보고, 만약 있다면 채식인 당사자와의 대화를 통해 양해를 구하고 대안을 찾는 등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협의한 뒤 식단을 구성하도록 합니다.

•4 채식을 하는 이유는 각자 다릅니다. 단순한 '취향'일 수도 있고, 신념에 의한 것일 수도 있으며, 어쩌면 복합적일 수도 있습니다.

•5 채식은 개인의 의지에 따른 선택으로 동정 또는 연민의 대상이 아닙니다.

•6 채식인이 술을 마실 수 없나요?

•7 채식인에게 채식에 대한 논쟁에 참가해야 한다는 부담을 지우지 맙시다. 건강하고 성숙한 사회적 논의는 물론 환영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채식인이 무조건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거나 언제 어디서든 말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식인이 논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존중해주세요.

*8 장애인의 행동이나 외관을 희화화하는 것은 국내 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재생산되어왔습니다. 장애를 흉내 내는 행위에 비하의 의미가 담겨있음을 인지해야 하고, 장애인에 대한 조롱을 가능케 하는 권력 관계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9 장애인의 가족은 그저 소속된 가족 공동체의 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가 시혜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도덕적 추론이 어떠한 논리적 결함을 갖는지 점검해봅시다.

*10 장애는 누구나 갖는 것, 혹은 누구나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는 생각은 장애의 특수성을 가리는 발언이 될 수 있으므로 위험합니다. 보편적인 인류로서 장애인을 사유하는 것과 장애를 가진 특정한 개인으로서 장애인을 사유하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없을까요?



03

동아리 개강총회

피곤해진 쥘쥘은 단과대 동아리 개강총회에 간다. 한라봉은 동아리 활동에 전념해왔고 능력도 있는 친구다. 누구나 그를 다음 회장감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쥘쥘은 동아리 사람들로부터 한라봉이 이번 학기 회장 대신 부회장을 맡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한라봉에게 물어보니 이미 임원들의 후임이 정해져 있었고, 여학생인 한라봉은 처음부터 당연하다는 듯, 회장 후보에서 배제되었다.*1고 한다.

*1 사회의 성 인식이 상당히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에도 이슈가 되고 있는 유리천장(혹은 시멘트 천장)과 성폭력, 남성중심적 사회의 관습과 편견, 그리고 이로 인한 문제들은 과연 우리의 성 인식이 구성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변화하였는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학생사회 또한 사회의 일부이니만큼 위와 같은 성차별적 문제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동아리에서의 여학생 임원 배제 문제 또한 이 예시일 것입니다.

성평등한 공동체 만들기는 개개인의 다양성을 편견 없이 존중하고,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남성이 당연하게 대표자를 맡는 분위기, 구성원들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대표자를 선출하는 분위기는 지양해야하지 않을까요?



한라봉은 눈물을 흘리는 제스처를 취하며 썩썩하게 “힘내, 그래도 너네는 대학탐방 올 만큼은 똑똑하잖아. 오렌지는 아주 말을 잘 하는데! 난 장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네. 나중에 꼭 우리 학교 오렴!”*2라며 위로의 말을 건넨다. 썩썩하고 오렌지, 밀감이는 얼떨떨하다. 썩썩은 밀감에게 연세대학교에는 저런 사람들이 많으냐고 묻고, 밀감이는 슬픔에 잠겨 대답을 할 수 없다.

썩썩하고 오렌지는 고를샘에서 맛있는 점심을 먹고 기운을 차린다. 밖으로 나와 집합장소인 외솔관으로 향하는데, 외솔관으로 올라가는 언덕은 경사가 너무 가파른 나머지 밀감이가 도저히 휠체어를 밀고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가 없다. 밀감이는 하는 수 없이 위당관 쪽으로 돌아가는 경로를 택한다. 가는 길에 다른 멘티-멘토들이 왁자지껄 떠들며 무리지어 가는 것이 보인다. 사교성이 좋은 오렌지는 아침에 처음 만나기는 했지만 낯을 가리지 않고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인사를 건넨다.

밀감이가 잠시 담배를 피우려 자리를 비운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다. 밀감이가 돌아와보니 자리에는 썩썩하고 오렌지만 남아있고, 오렌지는 눈물을 쏟고 있다. 하염없이 우는 오렌지를 겨우 달래고 사정을 들어보니, 학생들(멘티-멘토)이 오렌지를 괴롭힌 모양이다. 오렌지가 수화 대신 구화를 사용하고, 입 모양을 자세히 관찰한 뒤 문맥상 내용을 추론하는 노력이 들어간 것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학생들의 말을 잘 알아들으니 보청기를 빼 보라며 몰아세운 모양이다.

밀감이 썩썩에게 멘토들은 말리지 않고 뭘 했느냐고 묻자, 썩썩은 “멘토 선생님들이 더 신나서 가담했는걸요. 제가 뭐라고 해도 가만 있어 보라며 듣지도 않았어요.” 라고 말했다. “저한테는 ‘어디든 걸어서 가지 않아도 되니 좋겠다. 나도 항상 그렇게 앉아 있으면 좋겠어. 휠체어 타고 가다가 과속 딱지 붙지 않게 조심해! 하하하.’ 그랬어요. 전 하 나도 안 웃긴데.”*3 밀감이는 “개네 인성이 원래 그래~ 그냥 무시해.”라고 말했다.*4

*1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을 보장받아야 하고, 마찬가지로 불편 없이 사회적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등한 공동체는 개개인의 다양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데에서 출발할 것이며, 장애인이 경험하는 사회적/물리적 장벽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개개인의 배려나 도덕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의무입니다.

*2 장애인은 비장애인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역경과 불행을 극복한 존재로 자의적으로 호출됩니다. 이는 장애에 대한 대상화이며 당사자를 주체가 아닌 타자의 차원에 가두어 인식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내가 쓰는 언어가 장애/비장애 간의 이분법적 구분을 강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언제나 생각해 보는 습관을 가집시다.

*3 타인의 장애를 함부로 의심하거나 희화화하는 것, 또한 이를 목격하고도 묵인 하는 것은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4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물지각한 행위를 마주했을 때, 그러한 행위의 원인을 개개인의 인성이나 성품의 문제로 돌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행위에 쉽게 웃어 주거나 혹은 무시함으로써, 장애를 비하하는 문화를 공고히 하고 학내의 장애혐오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조하고 있지는 않나요? 언제나 자신의 언행이 어떠한 사회적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되돌아보는 습관을 가집시다.



05

지하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로 통학을 하는 꾀깡. 등교 시간, 지하철 안에서 심심해진 꾀깡은 학교 커뮤니티 어플을 켜다. 켜자마자 보이는 인기 게시글. '솔직히 남자는 능력 여자는 외모 아님?'*1 그 밑에는 '솔직히 ㅇㅈ' '진화심리학적으로 어쩔 수 없음' '남자는 시각적 동물이라 그럼' 등의 댓글들. 아침부터 기분이 확 나빠진 꾀깡은 게시판 내의 다른 글들을 살펴본다.

'진정한 양성평등이 되려면 생리결석을 없애야 한다'*2 (추천 5 비추 0.) '여기 있는 새끼들 다 논지당 신고 당할듯' (추천 3 비추 0.) '여기 왜 이렇게 성차별이 심해?' (추천 2 비추 16 댓글 13.) '페미니즘은 정신병이다'*3 (추천 11 비추 1 댓글 5.) 댓글을 클릭해 보려다가 더 기분이 나빠질 것을 예감한 꾀깡은 그냥 체념한 채로 어플을 종료한다.

•1 여성이 출중한 외모만을 자산으로 능력 있는 남성과 결혼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소위 '취집'이라고 불리지요.) 의존적 여성상을 재생산합니다.

•2 월경 여부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리통의 정도를 개인이 증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질병결석계를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생리공결제는 월경으로 불가피하게 신체적 고통을 겪는 학생들의 교육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3 페미니즘을 비방하기 위해 '정신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정신 질환에 대한 몰이해로부터 비롯됩니다.



06

교실

교양 대형강의 수업시간. 켁썩은 점심을 먹고 밀려오는 졸음을 이겨내려 애쓰며 오후 수업을 버티는 중이다. 어느덧 오후 수업 시간이 되어 수업을 듣는다. 켁썩은 이번 학기에 어렵기로 소문난 수학 과목을 듣지만, 이번 시간의 교수님은 수업을 잘 한다고 평소에 소문이 나 인기가 많은 교수님이다. 어려운 사례도 잘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는 소문을 켁썩 또한 선배들에게도 들은 바가 있다.

수업을 하던 중 교수님은 '여학생들에게는 이것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1 이라고 말을 한다. 무엇인가 불편함을 느낀 켁썩 주위를 살펴 보지만 자신 외에는 아무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아 또 참고 넘긴다. 수업 시간은 계속 흘러간다.

수업 중, 뜬금없이 교수님이 '여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 없고 시집 잘 가면 그만'이라는 발언을 한다.*2 켁썩은 기분이 나쁘지만 교수님의 권위가 무서워서, 학생들의 비웃음이 무서워서 차마 뭐라 말하지를 못한다. 문제를 한참 풀다가 교수님이 다들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는 분위기를 풀기 위한 농담을 한다. '우리 남학생들, 다 예쁜 여자 만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3

다른 친구들은 모두 웃지만 켁썩이는 등교길에 만난 동기에게 차별적인 말을 들은 후 한라봉의 굳은 얼굴이 생긴다. 무엇인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해야 할 지 몰라 켁썩은 그저 답답함만 느낀다.

*1 남성과 여성이 수리적 능력에서 차이가 있다는 편견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2 여성 또한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경제적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3 여성을 노력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보상으로 여기는 발화입니다. 또한 결혼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지, 모두에게 강요되어야 할 과제가 아닙니다.



07

술자리

오렌지는 친구 켄짱과 함께 신입생환영회에 갔다. 뒤편이는 논의 없이 치킨으로 정해졌다.*1 술게임을 하는 중 오렌지와 켄짱이 걸리자 게이샷을 연호한다.*2

분위기에 쏠려 오렌지와 켄짱은 함께 팔을 걸고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다가 술이 조금 흘러 휴지로 입을 닦은 켄짱은 붉은색이 도는 립밤을 발랐다.

그러자 한 사람이 '너 게이냐'라며 웃었고 주변 사람들 또한 '게이들 극혐이야. 더러워...'라며 동조하거나 함께 웃었다.*3 밀감이 화나서 '여기 성소수자가 있으면 어떡할 건데?'라고 묻자 '내 주변엔 게이 없어. 있을 리가 있냐'라며 '난 머리로는 괜찮은데 마음으론 못 받아들이겠어. 있을 수 있는데 나한테 고백하는 건 싫어'라고 말했다.*4

이때 한라봉이 들어오자 사람들이 '한라봉은 화장도 안하냐. 자기관리 좀 해라'라며 핀잔을 주고 다른 동기는 '맞아. 한라봉은 살만 빼면 예쁠 거야'라며 맞장구를 쳤다.*5 선배들은 '야, 그럼 우리과 탑3 위스트3 뽑아봐'라며 말을 이어갔다.*6

*1 개인의 식습관은 다양합니다. 행사가 있고 뒷풀이가 있는 날이라면 미리 수요조사를 하거나 합의를 거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어떨까요?

*2 게이샷, 레즈샷과 같이, 성적 지향을 희화화시키는 언행은 일체 지양되어야 합니다.

*3 화장을 여성성으로 치환하고 또한 여성성을 게이의 특성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멈춰주세요!

*4 당신의 주변에도 성정체성을 밝히지 않은 성소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게이 이외에도 다양한 성소수자가 있습니다. 또한 남성 동성애자라고 해서 모든 남성에게 연애감정, 혹은 섹슈얼한 끌림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5 남성에게 요구되지 않는 화장이나 다이어트는 여성에게는 필수적인 자기관리라고 여겨집니다. 이는 여성의 행동과 욕망을 규제하는 기제가 됩니다. (또한 외모평가를 내리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일이에요!)

*6 여성의 외모로 개개인을 평가하는 것이 남성집단 내에 놀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주세요.

08

오티

깡깡은 올해 학교에 입학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가게 됐다. 오티에서는 학교 지리를 알기 위한 게임이라는 명목으로 선배들이 신입생을 데리고 학교 건물을 하나씩 찾아가 술을 먹었다.*1 오티 뒷풀이에서는 회장이 성별을 맞춰 새내기들을 앉혀놓고 이성 선배들이 테이블에 앉도록 자리를 조정했다.*2

술을 잘 못 먹는데다 오티 프로그램에서 이미 술을 먹어 더 이상 술을 먹을 수 없던 깡깡은 술을 못 먹겠다고 했고 사람들은 흑기사를 외치며 남자 동기에게 술을 먹게 했다.*3 깡깡은 자신 때문에 술을 먹은 동기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깡깡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오티 뒷풀이에서는 회장이, “남자끼리 있으면 칩침해.”라며 새내기들과 선배들의 성비를 맞춰 앉게 했다.

깡깡은 자리를 옮겨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다. 옆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화기애애하게 이야기하며 술을 마시고 있다. 그런데 우리 바로 옆 테이블, 과 동기들이 '푸하하' 웃는다. '아 짱깨 X나 시끄러!' 순간 잘못 들었나 싶어 조용히 귀를 기울인다. 누군가가 중국어의 억양을 따라 하며 '중국어 X나 웃기지 않냐?'라고 말한다.*4 깡깡은 혹시 들으면 어떻게 하나 조마조마한 마음이 든다. 그러나 욕설이 계속된다.

테이블 내 다른 학생들을 쳐다보지만, 다른 학생들도 그에 동조하며 자신의 경험담을 꺼낸다. '아 나 신촌에서 알바할 때 중국인들 맨날 단체로 들어와서 민폐 끼치다가 계산도 안 하고 가고 그랬잖아. 모든 중국인이 그런건 아니지만 중국인들이 흉악범죄 많이 저지르는 건 사실 아니야?'*5 깡깡은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한다.



*1 학번 또는 나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술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2 개인의 성별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성애 규범적인 커플문화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3 술은 마시기 싫다면 안 마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책임을 다른 이에게 전가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 또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4 언어의 특성으로 외국인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5 한국 사회는 외국인에 대한 수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견에 기반하여 선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09

도서관

조별과제가 있는 수업에서 같은 조가 된 학우들이 켑깡을 기다리고 있다. 켑깡은 서둘러 스터디룸으로 달려간다. 각자 돌아가며 소개를 하는데, 같은 조에 외국인 유학생이 있다. 외국인 유학생이 자기소개를 하니 다들 눈빛이 묘하게 달라진다. '아... 저희가... 역할 분담을 해야 하는데... 그...' 자꾸 다른 조원들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자꾸 그 학생의 눈치를 본다.

땀에는 외국인의 입장을 생각해서 느리게 또박또박 말해주는 듯 하지만, 켑깡은 자신이 외국인 유학생이라면 매우 기분이 나쁠 것 같다고 생각을 한다. "이거~ 우리가~ 다 해 주니까~ 안 해도 돼요~ 알겠죠?"*1라며 말긴 것은 컴퓨터 작업이나 타자치기 등 매우 간단한 일들이다.*2 켑깡은 이전 조모임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백인 유학생에게는 매우 친절한 얼굴로 대했던 주는 사람들을 떠올렸다. 켑깡은 확연하게 다른 태도에 화가 났다.*3

10

백양누리
주차장&화장실

주차장에 차를 대는 켄깁과 한라봉. 차 안에 있는 그들이 교직원인지, 외부인인지, 학부모인지는 알 수 없다. 행사가 있는 날인지 백양누리 안에 사람이 많고, 주차장도 만차상태 이다.

켄깁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세우자고 제안하고 한라봉은 망설이다가 그러기로 한다. *1 켄깁은 "우리 같은 노인들을 배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주차구역이 경로용이어야 하는데!" *2 라고 말한다. 켄깁과 한라봉은 행사 가는 길에 게시판 담벼락에 붙은 에이즈 관련 세미나 포스터를 본다.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고 한라봉은 "우리가 왜 항문으로 성교해서 에이즈 걸린 게이놈들을 위해 세금을 내야 하는지 원.." *3 라고 말한다.

뒤이어 장애인인 밀감이 주차장에 들어온다. 주차하려 하는데 자리가 없어서 고생한다. 밀감이 삼십 분 동안 주차장을 뱅뱅 돌다 겨우 주차하고, 화장실에 갔는데 장애인화장실에 청소도구가 비치되어 있었다. *4

•1 비장애인은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지 맙시다.

•2 신체적 노화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의 권리가 보장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애널섹스는 과연 게이만 하는지, 혹은 게이는 애널섹스만 하는지, 게이가 애널섹스를 하는 게 나쁜지? 성생활에서 콘돔을 끼는 것이 권장되나 콘돔을 하지 않은 섹스를 비난하며 감염인에게 수치심을 전가하는 것이 옳은가? 에 대해 고민해봅시다.

•4 장애인 화장실의 사용 빈도가 낮다고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00

마무리

지금까지 인권가이드라인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인권감수성을 함양하고 더 나은 연세공동체를
만드는 데에 인권가이드라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인권 가이드라인 제작〉

연세대학교 제 28대 총여학생회
〈around〉

연세대학교 제 29대 총여학생회
〈모음〉

〈제작지원〉

연세대학교 인권센터

〈출처 / 피드백 주신 단체〉

연세대학교 국제처

연세대학교 채식모임 베지밀

고려대학교 채식주의자-페미니스트 네트워크 뿌리:침

연세대학교 중앙 성소수자동아리 컴투게더

연세대학교 중앙 장애인권동아리 게르니카

〈편집디자인〉

연세대학교 제 29대 총여학생회
〈모음〉